

우리가 잊고 있던 서전병원의 기록, 이렇게 다시 썼다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

지난 9월 23일은 6·25전쟁 때 서면과 남구에 주둔하며 스웨덴병원(서전병원) 의료진이 도착한지 꼭 70년이 되던 날이다. 민간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스웨덴의 의료부대 1진은 지구 반대편에서 꼬박 한 달 걸려 부산항에 첫발을 디뎠고 이후 1957년 4월 수산대(현 부경대학교)에서 철수할 때까지 6년 7개월간 아군, 적군,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인류애적 사랑을 실천했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후 한국-스웨덴 외교 수교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되고 있다. 당시 스웨덴 의료진과 이들로부터 치료 받은 유엔군과 한국인 사이에 꽃핀 휴먼 스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The Swedes in the Korean War)’이 스웨덴 현지에서 제작돼 조만간 스웨덴 전역에 방영을 앞두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도운 남구청은 서전병원 7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기획자이자 스웨덴한국협회 라르스 프리스크(Lars Frisk) 협회장의 기고문을 요청해 지면으로 소개한다.

다큐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만든

라르스 프리스크 스웨덴한국협회장 특별 기고



라르스 프리스크

(Lars Frisk)

스웨덴한국협회장
스웨덴국군영화재단 이사장

나는 2003년 스웨덴정부로부터 한국 판문점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로 임명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3년간 근무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합의된 조직으로 1953년 8월 1일 첫 회의의 판문점에서 가졌다.

한국에 도착해서야 스웨덴이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처음한 활동이 중립국감독위원회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엔사령부가 교두부인 부산으로 옮긴 직후인 1950년 9월23일, 174명의 스웨덴 의료진이 4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부산항에 도착했다. 의료진들은 부산의 부전동에 배치되었고 이어 곧바로 부산산업고등학교(현재 서면 롯데백화점 자리)로 이전해, 도착한지 이틀 만에 첫 68명의 환자를 받았다. 이는 당시로서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최초의 의료지원단인 동시에 스웨덴에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도주의 프로젝트로 스웨덴의 자원봉사자들은 부산의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 설립을 위해 달려왔다. 이 모든 것이 70년 전의 이야기다. 1950년 9월 25일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 병원은 1만 9100명의 유엔군과 2400명의 한국군을 치료했고 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중공군 전쟁포로,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들도 보살폈다. 병원은 1957년 철수할 때까지 7년간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펼쳤다(스웨덴병원은 1957년 4월 남구 수산대에서 철수했지만 일부 의료진들은 귀향을 미루고 자발적으로 남아 한국인 의료진들과 함께 어린이 결핵치료 활동을 이어갔다).

한국전쟁 발발부터 1958년까지 1124명의 스웨덴 의료진이 부산의 스웨덴병원에서 근무했다. 대전 전투에서 패하고 북한군이 부산을 향해 진격하던 1950년 7월말 급박한 공지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의료지원단이 빠르게 선발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인상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6년 스웨덴으로 돌아와 보니 한국전쟁 당시 활동했던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스웨덴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스웨덴한국협회장과 스웨덴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으로 선출된 나는 이러한 무지에 대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스웨덴의 기여는 관련한 모든 이들에 영향을 미쳤고, 전쟁부터 그 이후까지 많은 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70년 전 조건 없이 한국을 도운 스웨덴의 사마리아인들은 나날이 나이들어 갔지만 여전히 한국전쟁에서의 스웨덴의 기여가 양국 간의 새로운 우호 관계와 강력한 유대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으리라 확

신했다.

스웨덴국군영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나는 재단의 영화 제작사인 AKA-Film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도록 설득했다. 영화 제작 프로젝트는 스웨덴인들이 몇고 먼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으로 부상자들과 현지 한국인 환자들과의 만남을 그리는 다큐멘터리였다. 우리는 대부분 90대 이거나 100세가 되는 초고령의 참전용사들과의 인터뷰를 촬영했다. 비영리단체인 스웨덴한국협회가 인터뷰와 취재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큰 실질적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참전용사들은 스웨덴 방방곡곡에 살고 있었는데 스웨덴 영토는 한국보다 4배 넓다. 그럼에도 30여명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카엘 헤드룬드 촬영 감독은 종래 만족했다. 그는 일찍이 12분짜리 홍보영상을 만들고, 이는 제작비 모금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피터 노드스트롬 영화 제작자와 참전용사 연락을 맡았던 나의 아내 세스틴과 함께 우리는 프로젝트 홍보 및 취재를 위해 총 세 번 한국을 방문했다. 2016년 10월 한국을 갔을 때 나의 한국 파트너인 박민선 한국-스웨덴협회장은 우리가 한국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는 영화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홍보영상을 내보냈는데, 방송 도중에 한국전쟁 때 부산의 스웨덴병원에 대해 기억하는 시청자들과 전화 연결이 되었다. 8명이 전화를 했고 이중 3명이 자신들이 기억하는 스웨덴병원에 대해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주한스웨덴대사관과 부산 남구청의 도움을 당시 스웨덴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한국 환자들을 만나 이들과 인터뷰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

포화 속 서면·남구서 6년 7개월간 조건 없는 인술

스웨덴 사상 최대 구호활동 불구 기억 저편에 묻혀

1124명 중 극소수 생존… ‘철수’ 이후 후속작 준비

그들 모두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사보’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두어살 때 트럭에 치여 크게 다쳐서 부산의 스웨덴 야전병원에 오게 됐다. 의사들은 그의 다리를 고칠 수 없었고 결국 일부를 절단해야 했다. 한 스웨덴 의사는 소년에게 목발을 만들어 주었고, 사보는 병원에서 목발을 잡고 놀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병원 의료진 모두가 그의 회복에 관여했고 그가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전쟁의 포화 가운데 일어난 일에 경탄했다. 우리는 그 사보를 마침내 찾았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만수’였다. 그는 우리를 만나 무척 기뻐했고 인터뷰에 응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했다. 시간 제약 상 인터뷰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속했다면 한국 환자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컸다. 안타깝게도 스웨덴 참전용사들은 모두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내가 아는 90세 미만의 스웨덴 참전용사는 이제 한 명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

2019년 2월 우리는 영화 완성본을 스웨덴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초청해 처음 상영했는데 300명이 넘는 이들이 스톡홀름에서 관람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상업영화로서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촬영 현장. 다큐 기획자인 라르스 프리스크(오른쪽 뒷모습) 스웨덴한국협회장이 1951년 스웨덴적십자병원에서 외과의사로 근무했던 토르 본 쉬리브 씨를 직접 인터뷰하고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주스웨덴한국대사관의 초청으로 한자리에 다시 모인 스웨덴병원 의료진들. 진료를 받기 위해 스웨덴병원 앞에 길게 줄을 선 부산시민들.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의 한 장면.

3년간 판문점 근무 계기 한국과 사랑에 빠진 퇴역 장군

■라르스 프리스크는 누구

6·25 발발 열하루 전인 1950년 6월 14일이 출생했다. 1972년 스웨덴 왕립군사학교를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2006년까지 34년간 스웨덴 육군으로 복무했다.

1997년~1998년 스웨덴 북부 육군 사단장 시절 소장으로 진급했다. 2004년~2006년 판문점에서 한국의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웨덴 대표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에 대해 처음 알게 돼 다큐멘터리 제작을 마음먹었다. 2006년 서면 스웨덴참전기념비 이전식에도 참석했다. 2006년 전역 후 스웨덴으로 돌아가 2007년부터 스웨덴 국군영화재단 이사장과 2011년부터 스웨덴 스웨덴-한국협회(Koreanska Sällskapet) 회장을 맡고 있다. 2014년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가 2018년 말에 완성했다.

스웨덴 국영방송국에서 2020년 가을에 방영 예정이며, 핀란드에서는 지난 여름 이미 방영되었다. 영화사 측은 한국 방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참전용사들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기억하는 이들의 숫자도 점점 줄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전에 다뤄진 바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설립의 토대와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고도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미래 세대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다큐를 제작하면서 참전용사들로부터 많은 사진들과 유품들을 수집했다. 사진은 모두 스캔해서 디지털화했고,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 계획이다.

1954년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은 ‘부산스웨덴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민간병원으로 재구성돼 1957년까지 활동했다. 1958년 가을까지 소규모 의료진이 한국전선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남았다. 스칸디나비아병원(현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서울에 설립되었고, 90% 이상의 보직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의사와 간호사로 채워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권이 한국 정부로 이양되던 1968년까지 150명에 가까운 스웨덴 의료진이 이곳에서 근무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한편에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을 기리는 작은 박물관이 지금까지 있다. 판문점에서 근무한 스웨덴인들과 더불어 다큐멘터리 후속작을 위한 충분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남구가 촬영 협조… 이번 가을 스웨덴 전역 방영

■다큐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6·25전쟁 때 부산에서 6년 7개월 의료구호 활동을 펼친 스웨덴적십자병원 의료진과 치료 받은 유엔군 및 한국인 환자들 사이에서 피어난 휴머니즘을 다룬 60분짜리 다큐멘터리이다. 2014년 무렵 촬영이 들어가 2018년 말에 완성됐다. 다큐 완성이 지연되면서 인터뷰에 참여한 참전용사들 상당수가 완성본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스웨덴병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뒤늦게 알아 본 남구는 2016년부터 부산남구신문 지면과 책자 발간을 통해 꾸준히 스웨덴병원 알리기에 나섰다. 남구는 또 스웨덴병원에서 치

료받아 생명을 구한 한국인 환자 10여명을 1년 여 수소문 끝에 찾아내,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등 촬영을 도왔다. 2019년 12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방한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다큐멘터리 상영회 때 남구는 이들 고령의 한국인 환자들을 인솔해 자리를 빛냈다. 남구의 이런 노력으로 다큐멘터리의 당초 제목은 ‘Let Us Never Forget(우리, 결코 잊지 마시라)’이었으나 최종적으로 ‘The Swedes in the Korean War(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로 바뀌었다. 다큐멘터리는 이번 가을 스웨덴 국영방송사 STV를 통해 스웨덴 전역에 방영된다. 국내 방송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우리는 몰랐던 스웨덴병원 의료진들의 한국 사랑

70년 한국 사랑… 한국 대학생에 장학금 25억 기부

■서전병원 근무 97세 요나손 여사

1950년 스웨덴 샤프트 에릭 간호학교를 졸업한 세르스틴 실비아 요나손(Kerstin Sylvia Jonasson) 여사는 1951년 부산에서 6개월간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에서 수술부 간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나이 28세였다.

이때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으로 스웨덴으로 돌아간 뒤에도 거칠게 태극기를 꽂아 놓는 등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한국전쟁과 대한민국에 대해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했다. 2011년에는 남편 루네 요나손 씨와 함께 평생 모은 전 재산 7000만크로나(한화 123억원)를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에 기부했고 그 기부액 중 25억 원을 다시 한국의 KAIST에



‘한국전과 스웨덴사람들’ 다큐팀과 인터뷰를 하는 요나손 여사. 뒤편으로 태극기가 보인다.

장학금으로 전달해 화제가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공로를 인정해 지난 2014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장교회관에서 요나손 여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참전용사 모여 1961년 설립… 한국 홍보대사

스웨덴한국협회… 계간지 ‘여보세요’ 발간·장학회도 운영

스웨덴한국협회(http://koreanska.se)는 6·25 전쟁 중 의료지원단으로 파견된 스웨덴 참전용사들과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소속 퇴역군인들이 주축으로 1961년 4월 창립된 민간단체로 ‘Yoboseyo(여보세요)’라는 계간지를 발간해 스웨덴 내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협회는 매년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스웨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회도 운영하고 있다. 라르스 프리스크 협회장의 부인인 세스틴 프리스크(Kerstin Frisk) 씨가 협회 장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